

# 韓國文學과 日本文學

大谷 森 繁  
(日本 天理大)

- |            |               |
|------------|---------------|
| I. 前 言     | 2. 高麗歌詞와 源氏物語 |
| II. 本 論    | 3. 平民文學과 町人文學 |
| 1. 鄉歌와 萬葉歌 | III. 結 語      |

## I. 前 言

오늘 本人이 맡은 主題는 韓國文學과 日本文學인데, 本人의 能力도 能力이러니와 한정된 시  
간내에 細部에 걸쳐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文學史的인 說明은 日本文學에 한하고, 그 다  
음에 1. 鄉歌와 萬葉歌(和歌) 2. 高麗歌詞와 源氏物語 3. 平民文學과 町人文學의 세 題目  
을 設定하여 兩國文學의 位相을 살펴 보려 한다. 本 發表에서 日本文學에 더욱 力點을 둔 理  
由는 韓國文學 專攻의 여러분께 兩國文學의 發達相을 밝혀보자는 소망 때문이다.

먼저 簡單히 日本文學의 時代區分을 말씀드리면, 古典文學은 上代·中古·中世·近世로 나누  
는 것이 一般的이다. 上古文學은 文學의 發生부터 平安(지금의 京都)으로 首都를 옮긴 794年  
까지로 이 時代는 政治와 文化의 中心이 주로 大和(奈良)地方에 있었으므로 大和·奈良時代라  
고도 부른다. 7世紀頃부터 記錄文學時代로 접어들어 神話·傳說·說話등이 收錄된 《古事記》  
와 神話·歷史書로서의 《日本書紀》 그리고 詩歌集으로 《萬葉集》이 編纂되었다.

中古文學은 歷史區分上의 平安(헤이안) 時代文學이며, 具體的으로는 794年의 遷都부터 鎌倉  
땅에 武士政權이 樹立된 1192년까지의 약 400年間을 말한다. 特色은 平假名(히라가나), 片  
假名(가다가나)이 發明되어, 日記文學과 物語(모노가다리)文學이 一時에 꽃피게 되는 時代로  
서 이 時代의 第3期에 隨筆文學의 걸작 〈枕草子〉(마쿠라노소오시)와 長編〈物語〉인 〈源氏  
物語〉(겐지모노가다리)등이 宮中에 起居하는 女官들의 손에 의해 執筆된다.

다음 中世文學은 대개 12世紀末부터 17세기 初頭까지의 四百數十年間의 文學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鎌倉·室町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日本 中世의 開幕은 징기스칸이 即位한 해  
(1207), 高麗의 崔氏가 政權을 잡은 해(1196)와 거의 비슷한 時期라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  
이다. 前時代의 〈公家〉(구계, 朝廷에 出仕하는 貴族)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王朝의 색채를 띤

文學은 차차 침체되는 반면 武士階層의 文化와 思想이 中世文學 全般에 걸쳐 깊은 影響을 미친다. 〈連歌〉(령가) 〈能狂言〉 혹은 〈平家物語〉 〈太平記〉 등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軍記物語〉가 새로운 장르의 文學으로 確立되면서 流行하였다. 庶民들까지를 讀者로 삼는 短編小說인 〈御伽草子〉(오도기조시)가 出現한 것도 이 時代다.

近代文學은 〈大望〉의 主人公으로 韓國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德川家康이 지금의 東京인 江戶(에도)에 幕府를 둔 1603年부터 明治維新이 일어난 1867年까지의 約2世紀半의 文學이며 江戶文學이라고도 한다. 中世가 動亂의 時代로서 佛敎가 사람들의 思想이나 生活 속에 깊이 스며든 時代라고 한다면, 近世는 太平한 時代를 맞이하게 되어 中央集權의 政府가 確立되었기 때문에 現實的이며 合理主義的인 儒敎가 思想的인 指導力을 가지게 된 時代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貨幣制度가 確立되어 經濟活動이 活潑해짐에 따라 町人(조오닝, 都市에 사는 商人, 匠人 階級의 사람들)이 經濟權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一部 特權階級의 所有物이었던 文學은 庶民에 대한 敎育의 普及과 더불어 識者階層이 擴大되면서 廣範圍하게 開放되었으며 町人文學이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이 日本古典文學의 時代區分과 時代의 特色이라 할 수 있는데 韓國文學의 時代區分은 金東旭敎授의 上代·中世(高麗)·近世(朝鮮朝)의 區分을 따르기로 한다.

## II. 本 論

### 1. 鄉歌와 萬葉歌

鄉歌는 넓게는 漢詩에 대한 自國의 노래, 즉 新羅의 노래를 가리키지만 좁게는 鄉札로 表記된 노래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日本에도 漢詩에 대비해서 〈和歌〉, 〈御國風〉(미꾸니부리)라는 呼稱이 있었으니, 萬葉歌는 最初의 和歌라고 말할 수 있다. 鄉歌와 萬葉歌는 다 같이 兩國 上代의 詩歌를 代表하는 것이고, 각기 漢字의 音과 訓을 사용한 表記法인 ‘鄉札’과 ‘萬葉假名’으로 쓰인 점이나 定型詩라는 점, 또 上代人들이 共有하는 素朴한 情感이나 直說的 歌風이 보인다는 점 등에서 어떤 共通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成立段階에서 그 둘은 상당한 相異點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相異點은 以後 兩國의 文學의 方向을 暗示하고 혹은 決定하는 重要한 要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筆者가 지금 萬葉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萬葉集에 收錄된 노래를 말하는데 그 대부분은 舒明天皇(629年 即位)以後 淳仁天皇의 天平寶字三年(759年) 大伴家持(오도모노야가모지)의 노래까지 130年間の 作品이다. 萬葉 以前에도 물론 노래는 있었다. 文字가 없던 古代人들 사이에서도 集團 속에서 태어나 계속 노래로 불린 歌謠(Song Ballad)가 있었고 그 一部

는 《古事記》나 《日本書紀》에 採錄되어 傳來하고 있다. 이러한 上代歌謠는 원래 歌詞와 함께 音曲이나 몸짓, 때로는 舞踊까지 수반하며 노래로 불린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차차 ‘ 읊는 노래’, 記錄되는 노래, 個人的 意識이 깃드는 創作歌로 進展해서 <和歌>의 時代로 접어 든 것이다. 이러한 和歌를 集大成한 것이 萬葉歌이다. 여기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萬葉歌는 노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 읊는 詩’, ‘ 鑑賞하는 詩’ 였다는 事實이다. 初期 萬葉에는 記紀歌謠(古事記와 日本書紀 所收의 歌謠)의 모습도 있어서 呪的 性格이나 集團性, 또는 自然과의 融和性이 보이고, 口誦文藝와는 다른 性格을 보이기도 하여 그것을 脫皮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漢詩에 接하기도 하면서부터는 차차 <大和歌>(自國의 노래・和歌)에 대한 自覺도 생기면서 個性的 和歌에의 推移도 同時에 엿볼 수 있게 된다.

專門的 歌人의 이름을 들어 그 特徵을 記述하는 것은 省略하지만, 主情에 의한 特情歌가 많이 지어졌다는 것은 萬葉集의 分類가 ‘雜歌’(‘相聞’, ‘晚歌’ 以外の 여러가지 노래, 行幸・遊宴・四季・自然・日常生活의 노래 등을 包含한다) ‘相聞’(私的인 親愛의 情을 서로 傳하는 노래, 原義는 서로 問安하는 뜻. 父母 子息間이나 親舊間의 경우도 있지만 그 性質上 戀歌가 大部分을 차지한다), ‘晚歌’(原義는 葬禮時 運柩者가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지만 萬葉集에서는 自己나 남의 죽음등 널리 죽음에 대한 노래의 뜻으로 사용된다)의 三部로 大別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實體에 있어서도 “日常生活에 임해서 그 느낀 것을 그대로 直叙의 叙情해서, 그것을 5・7 調의 리듬에 실어 힘차게 그리고 구김새없이 노래 부르고 있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여기서 萬葉歌와 鄉歌를 綜合的으로 比較云云한다는 것은 《三代目》이 佚書가 되고있는 오늘날 매우 困難한 일이다. 다만 앞에서 萬葉集을 말한 視點에서 《三代目》을 생각할 때, 《三代目》에 收錄된 노래의 主流가 個人的 主情을 읊은 叙情詩라든가, 當時에 鄉歌(形式, 表記를 갖춘)를 專門으로 짓는 사람이 多數 있었다고 想像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勿論 忠談師의 讀老婆郎歌와 같은 뛰어난 叙情詩가 있었다는 것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均如傳》 所收의 11首는 말할 것도 없고 《三國遺事》 收錄의 14首는 編者 一然의 選擇이 作用했으리라는 것을 想像할 수 있듯이 《三代目》의 編纂에 있어서도 大矩和尚과 같은 僧侶가 관계한 이상 叙情詩보다 讚佛歌가 더욱 많이 收錄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視點을 좀 바꾸어서 이 問題를 생각해 보자. 金東旭教授는 鄉歌(廣義의 新羅歌, 狹義의 鄉歌-筆者註)의 下部的 장르를 祭神歌・詞腦歌・民謠・長歌・念佛歌・郡樂으로 設定하여 考察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多樣性이야말로 廣義, 狹義할 것 없이 鄉歌의 實體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狹義의 鄉歌에 구애받지 않고 當時 新羅人의 노래의 世界를 想像하면 李承休가 《帝王韻記》에서 “花朝月夕携手遊, 別曲歌詞隨意製”(화조월석 좋은 시절 손에 손 잡고 놀고 놀아 별곡 가사 노래들을 마음대로 지어 읊다)라고 말했듯이 集團에서 불리는 民謠에

鄉歌의 主流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 큰 흐름이 古代 部族國家의 國中大會의 歌舞에서 〈會蘇曲〉을 거쳐 現代에 繼承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文學性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萬葉歌 즉 和歌 時代에 접어들면 和歌에 文學性이 要求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和歌에 대한 評論이 平安 中期頃부터 시작되고 奈良時代에 벌써 그 萌芽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萬葉歌》의 題詞나 左注에도 批評意識의 斷片이 보이지만, 漢詩에 대한 和歌(自國노래)라는 뚜렷한 自覺을 가지고 漢文學에서 詩想을 배우고 老莊이나 儒·佛에서 教養을 얻는 등 漢文學의 풍부한 素養 위에서 ‘大和心’(日本의 마음)을 읊으려 했던 것이다. 그 以後로 和歌는 ‘雅’의 文學으로서 中國에 있어서의 詩처럼 ‘日本文學의 主流’라는 確固한 자리를 維持해 온 것이다.

이와는 달리 鄉歌에 있어서는 鑑賞을 隨伴하는 높은 文學性이 要求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것은 鄉歌를 짓는 쪽에서나 노래하는 쪽에서나 같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당시 韓國인들은 詩歌의 文學性을 鄉歌보다 漢詩라는 形式 속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例로 崔致遠(857年)의 七言律詩 ‘發潤州慈和寺上房’이나 五言絕句 ‘秋夜兩中’ 등이 古來로 絕唱이라 일컬어지며 文學적으로 높이 評價되는 것처럼, 日本과는 對照적으로 詩歌의 높은 文學의 세계는 鄉歌에서 보다는 오히려 漢詩를 媒體로 表現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傾向이 高麗·李朝로 내려오면서 時調 歌辭時代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本質적으로 變함이 없었다는 것은 李退溪의 時調觀이나 그의 自作인 ‘陶山十二曲’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 2. 高麗歌詞와 源氏物語

上代文學에 있어서 韓國文學이 漢詩文에 기울어져 가는 傾向이 있는 반면 日本文學은 漢詩文을 教養으로서 높이 評價하며 그것을 受容하는 한편, 거기에서 떨어져 獨自인 文學을 가지려는 傾向도 나타난다. 특히 日本中古文學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可能케 한 條件은 ‘平假名’과 ‘片假名’의 發明일 것이다. 그 새 文學의 誕生을 背景으로 9世紀末에서 10世紀 初頭에 걸쳐 〈和歌〉가 盛行하여 最初의 勳逆和歌集인 《古今和歌集》이 編纂되며 눈에 띄게 ‘國風의 文化’가 成熟해 가는 것이다. 894年 菅原道眞(수가와 라미지자네)의 建議로 遣唐使가 폐지된 것도 唐王朝의 衰微에 相應한 日本의 文化的 自立을 나타내는 象徴的 事件이라고 보는 傾向도 있다. 本章에서는 새로이 日本文學史에 登場한 ‘假名’으로 된 〈物語〉文學에 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登場하는 것은 〈傳奇物語〉라고 하는 것으로 9世紀 後伴에 나타난 〈竹取物語〉이었다. 10世紀 前半頃에는 〈歌物語〉로서 〈伊勢物語〉가 나온다. 이 〈歌物語〉의 特徵은 比較的 짧은 地文에 몇首의 和歌를 실어 그리 길지 않은 하나의 章을 形成하는 점이다. 〈伊

勢物語〉는 125章 209首로 形成되며 그 主人公인 ‘昔男’의 一代記風의 〈物語〉로 되어 있다. (‘昔男의 一代記’란 옛날 어디에 살던 어떤 사람의 한 平生을 그린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傳奇物語〉와 〈歌物語〉의 양쪽 性格을 繼承하여 보다 規模가 크고 綜合的인 內容으로 이루어진 것이 11世紀 初頭に 쓰인 紫式部(무라사키시키키부)의 〈源氏物語〉인 것이다. 그 概要는 다음과 같다.

어느 天皇代에 後宮이 낳은 皇子인 光源氏가 커서 여러 女性을 相對로 하는 사랑을 中心으로 이야기는 展開된다. 특히 光源氏가 사랑한 女子는 父帝가 亡母 대신 後妃로 삼은 藤壺(후지쓰보)였다. 光源氏와 藤壺는 不倫 關係로 빠지고, 그러다가 藤壺를 아주 닮은 若紫라는 女性을 그는 사랑하게 된다.

11世紀 初頭라는 이른 時代에 世界에 자랑할 만한 一大 長編 로망이 어떻게 해서 한 女性에 의해 쓰여진 것일까? 그 理由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假名’이 發明되어서 自由로 자기 생각을 自國語로 表現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時代에는 ‘眞名文’(眞書·漢文)이 男性의 것이라면 ‘假名文’은 女性의 것이라는 意識이 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以前에도 女性에 의해 ‘假名’으로 많은 和歌가 지어졌고, 日記文學이나 隨筆文學이 이미 女性文學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理由로는 歷史的 背景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時代는 都城이 京都로 옮겨진 지 200年이 經過되었고 그간 太平盛代가 계속되어 文化는 여러 方面에서 國風化되며 圓熟해지고 있었다. 有力한 貴族들은 서로 자기 딸을 天皇妃로 삼으려 했고, 그리하여 자기 딸에게는 教養있는 女性을 딸리기도 했다. 隨筆文學의 精粹라는 〈枕草子〉의 作者 清少納言도 紫式部도 모두 妃를 따라 宮廷에 들어간 女官(日本에서는 女房)이었다. 한편 이 時代에는 獨特한 文化的 氛圍氣를 가진 宮中の 싸움이 탄생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平安朝에서 女性文學이 찬란한 꽃을 피우는데, 이것은 유럽에서도 라틴語에 대한 地方語(國語)에 의해 로망이 쓰이고, 또한 로망의 發達에 女性 讀者가 크게 貢獻한 事實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어찌면 로망(傳奇·小說)은 男性이 라틴語나 漢文으로 公式的 文章을 쓴데 대해 女性의 ‘읽을거리’라는 性質을 本質的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日本의 中古時代에 해당하는 高麗時代의 文學 樣相은 어떠한지 살펴 보기로 하자. 新羅 元聖王 4年(788年)에 시작한 科目에 의한 選拔制度는 高麗 光宗 9年(958年)에 正式 科擧制度로 出發하면서 사람들은 漢詩文을 더욱 熱心히 배우게 된다. ‘高麗의 詩’ ‘李朝의 文’이라고 일컬어지듯 高麗時代에는 鄭知常(? ~ 1135), 金黃元(1045 ~ 1117)과 같은 뛰어난 詩人이 탄생된다. 그러나 詩건 文이건 간에 그것은 士大夫의 文學이며 男性의 文學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高麗의 歌詞文學이다. 그것은 〈高麗歌詞〉가 女性의 文學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대한 思慕의 情을 노래한 〈思慕曲〉, 愛人과의 離別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가시리〉나 〈西京別曲〉, 그리고 高麗의 習俗을 中心으로 님을 그리는 心情을 달거리로 읊은 노래이며 섬세한 女心の 텔리커시가 깃드려 있다는 〈동동〉等 많은 秀作은 大部分 女性文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高麗中期 以後는 잦은 外寇와 겹치는 內亂때문에 民衆의 生活이 매우 고통스러웠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歌詞들은 感情이 풍부할 뿐 아니라 自由스럽고 거침이 없다. 특히 戀歌는 뛰어난 大膽한 表現을 하면서도 卑俗에 빠지는 일 없이 아름다운 리듬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朝鮮朝의 노래가 大體로 儒敎主義에 빠져 다소 乾燥한 印象을 주는 것과는 많은 差異가 있다고 생각된다. 平安朝의 宮中 싸롱에서 자기의 才氣를 과시하기 위해 執筆된 王朝風의 女流文學인 〈源氏物語〉나 〈枕草子〉와, 어려운 現實 生活 속에서도 主로 女性들에 의해 구김새 없는 感情을 自由롭고 아름답게 노래한 高麗歌詞는 異質的인 面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둘 다 女流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과, 뛰어난 文學性을 지녔다는 점에서 매우 共通되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平民文學과 町人文學

여기서는 韓國과 日本의 近世文學에서 이 問題를 살펴 보고자 한다. 日本에서 最近에 發刊된 「中央公論」 10月號에는 “近世의 發見”이라는 題目으로 三者의 座談이 掲載되어 있다. 여기에서 日本 近世文學에 造詣가 깊은 콜럼비아 大學 教授인 도날드·킹氏가 재미 있는 發言을 하고 있다. 그는 日本 近世文學의 제일 큰 特徵은 “돈의 役割”이라고 말한다. 그는 “中世 室町時代의 〈能(노오)〉를 보면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면 悲劇은 피할 수 있었다”라는 例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近松의 淨瑠璃(조오루리, 人形 淨瑠璃台本, 音曲에 맞추어서 朗唱하는 옛 이야기) 作品인 경우(近松門左衛門은 그의 作品에서 近世 町人の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마음의 葛藤을 寫實的 方法으로 浮刻시켰다. 一筆者註) 町人들의 情感의 解放을 解放을 追求하면 追求할수록 그 길은 오히려, 좁아져 돈·義理·人情이 얽히고 설켜 결국은 죽음에 의하지 않고는 靈魂의 救濟를 바랄 수 없는 悲劇으로 끝난다……돈만 있으면 자기의 生活이 설 수 있다. 돈만 충분히 있었다라면 끝내 情死할 必要는 없었던 것이다. 近松과 中世 〈能樂〉의 大成者인 世阿彌(제아미)와의 比較는 아주 簡單해서 돈의 役割이 틀리는 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淨瑠璃〉와 더불어 日本近世文學을 代表하는 것에 〈浮世草子〉가 있다. 元來 “浮世”는 “憂世”의 뜻이었다. “浮世”는 現世, 當世라는 뜻이다. 그 “憂世”에서 “浮世”로의 變化는 宗教的 厭世的인 中世 思想에서 現實的·享樂的인 近世 思想에로의 轉換을 뜻하고 있는데, 그 代表的 作家가 井原西鶴(이하라사이가쿠)로서 그의 〈好色一代男〉(好色男子一代記라는 뜻)은 그 嚆矢가 되었다. 西鶴은 이 作品에서 徹底하게 町人の 性의 解放과 享樂生活을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遊里(遊廓)에서 人間性的 回復(好色)을 지탱하는 町人の 經濟 生活의 여러 모습을 題材로하여 作品을 쓰고 있다.

日本文學에서 돈에 얽힌 經濟生活의 問題가 文學의 主題로 取扱된 것은 西鶴의 町人物이 最初였지만 실은 그에게는 <好色物><町人物>外에 <武家物>로서 <武家義理物語> 같은 武士階級의 世界를 그린 作品도 數篇 있다. 도날드·킹氏는 그러한 <武家物>의 執筆 動機에 관해서도 색다른 見解를 표하면서 “自己 小説을 江戸(東京)에서 팔고 싶어서였다. 요컨대 돈이 아쉬웠던 것이다. 大阪이라면 讀者들은 町人文學으로 滿足했지만 江戸의 住民들은 주로 武士階級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文學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라고 發言하고 있다. 核心을 찌르는 매우 재미있는 見解라고 생각한다.

日本の 近世 小説은 印刷術의 發達(小説은 주로 假名文學의 흘림체를 사용해서 쓰고, 또 大量生産을 생각해 木版本이 普通이었다)과 識者人口의 增大, 小説의 商品化라는 條件 밑에서 大阪·京都와 江戸(東京)의 三大 都市를 中心으로 눈부시게 發達했다. 小説이 가장 大衆化된 18世紀 後半期로 접어 들면 <草双子>(구사조오시)는 婦女子와 어린이, ‘讀本’은 知識層, ‘滑稽本’은 大衆, ‘人情本’은 婦人層이 讀者요, ‘黃表紙’·‘洒落本’·‘狂詩’들 가운데는 극히 제한된 文化人만을 讀者로 예상하는 程度로 讀者層의 分化에 따라 小説의 種類도 多樣化된다.

勿論 近世文學으로는 ‘雅’의 文學 즉, 高尚한 文學으로서 漢詩文이 있었고, 和歌는 이 時代에 들어 復古的 國粹主義 思想의 影響으로 萬葉歌風의 和歌가 尊重되면서 中國文學에 있어서의 詩와 마찬가지로 最高의 文學으로서의 位置를 계속 차지하고, 小説이 社會的 信用을 얻은 것은 近代文學 以後의 일이다. 그때까지는 俗文學으로 밖에 認識되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經濟적으로 急速히 힘을 얻은 町人階級을 讀者로 하여 町人 出身의 作家 혹은 出身은 町人이 아니더라도 作品에서는 町人世界를 그리는 作家가 나타나면서 새로이 庶民의 文學인 町人 文學이 탄생한 것이다.

한편으로 韓國에서도 17, 8世紀부터 中人·庶流·胥史 등 소위 平民階層의 사람들이 積極적으로 文學活動에 參加하면서 새로운 樣相을 띠게 되었다. 時調 分野에서는 最初의 歌集인 “靑丘永言”의 編者 金天澤이나 《海東歌謠》의 編者 金壽長을 中心으로 하는 敬亭山 歌壇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傾向의 時調가 나온다. 그들 時調의 特徵으로서는 “享樂的, 卽興的, 諧謔的, 寫實的”(李明善: 朝鮮文學史), 또는 “暴露的인 描寫와 象徴的인 暗喩의 技法, 愛情·去來·收奪·悖倫·性欲 등 實로 多彩로운 主題”(鄭炳昱: 時調文學事典), “리얼리즘의 描寫”(李能雨: 李朝時調史) 등이 擧論되고 있다.

小説 分野에서의 平民의 活動은 그다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趙潤濟氏는 無名으로 傳하는 小説의 作者로서 “市民階級의 人物”을 생각하고 있고, 金東旭氏도 “寫本 筆寫는 물론, 創

작도 南北村의 貧寒한 兩班의 後裔나 胥史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朝鮮朝의 小說 發達에 크게 기여한 中國 小說의 翻譯에는 특히 中國語에 능통한 中人出身 譯官이 參與했으리라는 가능성은 充分히 생각할 수 있다. 또 판소리가 文字로 定着하는 過程에서 胥史 出身의 申在孝가 이룩한 공헌은 매우 크다. 民謠나 辭說時調와 마찬가지로 판소리에는 庶民의 感覺에 의한 發想과 俗語의 使用으로 效果를 거두고 있는 諧謔, 풍자, 機智가 넘쳐 흐르는데, 그것은 申在孝의 붓에 의해 더욱 增幅되었을 것이다.

近世(韓國에서는 朝鮮 後期)의 兩國은, 가령 貨幣의 流通 하나를 보아도 큰 差異가 있기는 하나, 町人階級과 平民階級 사람들이 文學에 새로이 參與하고 있다는 점과 從前의 文學에서는 보기어려웠던 世態와 生活의 리얼한 描寫라든지, 그때까지 타부視 되었던 性欲(好色)조차 人間性의 回復으로서 文學에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은 兩國間에 상당한 共通點이 있다는 것을 發見케 한다.

다만, 朴熙秉氏가 朝鮮 後期의 野談系漢文 短篇에 대해서 이것을 在來의 野談과 區別하면서 “當代 民衆(특히 新興 都市民)의 必要性에 따라 民衆의 世界觀에 대응되어 民衆들에 의해 發生 發達한 小說의 이야기”라고 規定한 다음, “그러나 그 享受層은 漢文으로 記錄된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읽힐 수 없었으며 또 애초부터 都市 平民層을 前提로 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需要普及도 주로 下層 兩班이나 中人層에 국한되었다”라고 하였듯이 “읽을 거리”로서의 小說의 普及 樣相에는 兩國間에 큰 差異가 있었다. 日本에서는 “습卷”(고오강)이라 불리는 種類는 下女들까지 사서 보면서 그 多寡를 자랑했다고 하는데, 韓國에서는 坊刻本이 나올 때까지 庶民들로서는 “듣는 방식”을 통해서 小說을 享受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一般的 現實이었다.

言語와 文學이 不可分의 關係를 지녔다고 하면 韓國의 近世 小說을 생각할 때 한글이 어떻게 受容되었으며 普及되어 갔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한글은 주로 宮女나 兩班집 女性들에 의해 佛經 諺解라는 形式으로 受容되었고, 小說도 안방의 “읽을거리”로서 그들을 주된 讀者로 하여 發達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8世紀에 들어와서 “貫冊”이 流行하면서 兩班階層의 婦女子들뿐 아니라 그 이외의 經濟적으로 여유가 있는 階層의 女性들에게도 차차 普及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普及에도 限界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貫冊家가 서울 이외에는 다른 큰 都市에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推測을 可能케 한다.

이와는 對照적으로 日本에서는 18世紀初부터 江戶, 京都같은 都市는 물론 溫泉場에도 貫冊 단 專業으로 하는 業者가 생겼고 坊坊曲曲을 돌아다니는 貫冊 行商人이 등장하기도 하여 그 普及은 매우 넓은 範圍에 이르렀던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보았듯이 兩國의 近世文學에 있어서 韓國의 平民階級과 日本의 町人階級이



文學에 大舉 參與한다는 사실과 그 文學의 技法이나 內容에 共通點을 찾을 수 있는 한편, 그 文學의 普及 樣相에는 어느 程度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보다 具體的인 考察은 後日로 미루고자 한다.

### Ⅲ. 結 論

韓國과 日本文學의 起源은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한다. 韓國의 古代 部族國家에서 播種・秋收期 또는 正月에 行하여진 祭天儀式에서의 祝詞는 神話의 시작이었을 것이고, 그 뒤에 펼쳐진 歌舞는 民謠의 始發이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똑같은 것이 古代 日本에서도 行하여졌다. 이러한 祭天儀式에서의 歌舞는 世界 共通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알타이系の 農耕民族으로서의 共通點을 韓日 兩國은 文化面에서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漢文化가 들어와서부터는 漢文化와 알타이系 文化를 同時에 지니는 二重構造의 文化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兩國이 닮은 점이다. 그 具體的 例로서 兩國이 漢字를 빌어 自國語를 表記하려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韓國의 ‘吏讀’와 日本의 ‘宣命書’(셈메이가끼), ‘鄉札’과 ‘萬葉假名’의 發明이 그것이다. 韓國은 日本에 대한 漢學의 “傳授者”이며 日本의 哇의 略體는 韓國에서 배운 것일 것이다. ‘萬葉假名’의 發明을 비롯하여 上代 日本文化나 日本文學에 韓半島에서 바다를 건너 온 韓國人이 큰 影響을 끼쳤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萬葉集의 有名한 歌人 山上憶良도 그런 渡來 文化人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鄉歌와 萬葉歌는 한편으로 相異한 樣相을 보이기도 한다. 萬葉歌는 그보다 先行하는 <記紀歌謠>(《古事記》나 《日本書紀》)所收의 歌謠와는 달리 吟咏고 鑑賞하는 “ 읊는 노래 ”로서의 文學性이 要求되며 日本文學의 主流로 이어지지만, 鄉歌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文學性은 漢詩에 담으려는 경향으로 흘렀다고 보여진다. 本人이 특히 鄉歌와 萬葉歌를 놓고 생각한 것은 漢詩文이나 漢文化를 受容하는 過程에서 兩國의 差異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日本에서 “假名”이라는 國字의 發明은 日本文學에 큰 變化를 준다. “假名”이 생겼다고 해서 漢字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混合해서 함께 使用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漢字는 극히 一部를 제외하고는 모두 訓으로 사용했다. 이런 國字의 發明으로 자유롭게 自國語를 自國文字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源氏物語>이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韓國에서는 自國文字를 發明하기 보다 漢詩文으로 思想 感情을 表現하는 길을 擇했다. 韓國語로 불린 高麗歌詞는 그들의 文學 基準으로 보면 俚語로 된 俗된 것이라고 밖에는 認識되지 않았다. 그러나 多幸히도 若干의 秀歌가 傳하면서 高麗의 女流文學의 片貌

를 볼 수 있다는 점과 뛰어난 文學性은 〈源氏物語〉類의 日本文學과 異質的인 面을 지니면서도 類似點도 찾을 수 있어 좋은 比較가 된다.

韓國의 平民文學과 日本의 町人文學의 考察에서는 비록 社會經濟的 差異 또는 自國語에 대한 意識의 差異나 普及 過程에서의 相違點 등을 볼 수 있기는 하나 17世紀 以後 世界史的 文藝復興, 市民文學 등의 흐름과 軌道를 같이 하면서 韓國에서는 平民文學이, 日本에서는 町人文學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음을 指摘하려 했다.

以上の 考察에서 不充分한 點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問題 提起에 一助가 된다면 多幸이라 생각한다.